

북한의 ‘자립적 중공업화’ 선택과 발전 토대 준비(1945~1956) *

장초(張超) **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56년까지 북한의 공업화 추진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이 주장한 ‘주체적 공업화’ 발전노선이 소련 사회주의공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이에 대한 북한 이해가 언제,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했고,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파악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 1950년대 ‘중공업 추구세력’ 대 ‘인민소비품 강조세력’ 간 대립의 실제 여부, ‘자립적 민족경제’, ‘자력갱생’, ‘주체공업’ 등 개념의 사용 시기와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논증했다. 이를 통해 북한 공업화는 소련이 경험했던 한 개 나라 단위의 ‘자립적’이며 ‘현대적’ 공업 창설이었지만, 1950년대 들어서며 사회주의블록 형성과 함께 소련의 ‘사회주의공업화’ 이해가 ‘현대 공업’만으로 한정된 이후, ‘주체적 공업화’라는 새 개념어를 만들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 박창옥 등 인민소비품 생산을 강조한 세력은 없었다. 1945~1956년 북한 공업화의 기본 내용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자립적 중공업 건설을 우선하며, 소비품 생산의 경공업 건설로 다면적으로 발전한 생산구조 확립, 자체 원료기지 축성, 과학기술인력 내부양성이었다.

주제어: 사회주의공업화, 자립적 중공업, 주체공업, 자립경제, 자력갱생

* 이 연구는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본 논문은 북한이 주장한 ‘주체적 공업화’가 다른 나라들의 공업화 진행과 무엇이 달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외 조건과 자기 능력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북한 학계는 ‘주체적 공업화’를 개설적으로 정리한 연구 성과를 여러 편 발표했다.¹⁾ 가장 큰 특징이자 한계는 승리와 영광의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서술한 것이다. 시기마다 마주쳤던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하지만, 자체의 한계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연구자들에게 ‘주체적 공업화’의 ‘왜’는 주체·자주·자립·자위를 위한 한 길이었고, ‘어떻게’는 김일성의 위대성과 조선로동당 정책의 성과, 인민대중의 결합과 동원일 뿐이다.

한국에서 북한의 ‘주체적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아직 없다. 사회과학 분야 연구 성과의 특징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성립 요인을 밝히기 위해 북한의 산업화 과정을 살핀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연철과 이태섭 등이다. 김연철은 북한 수령체제 성립 요인을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로부터 체제(제도) 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크게 진전시켰다고 평가받았다. 김연철은 초기 산업화전략 형성과 관련하여 이를 1953년 8

1) 김도성,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손철자,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우리 혁명승리의 담보』(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주체공업건설리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김병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럽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과학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학령도사』(전 2권)(평양: 과학원출판사, 2002).

월~1956년 1월, ‘중공업 중시세력’과 ‘경공업 중시세력’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한다.²⁾ 이태섭은 김연철의 주장을 “주관적인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하며 ‘실증’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그가 사용한 자료는 북한의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 실린 논문과 김일성 저작류였다. 그런데 공업부문 노동생산성의 연도별 부침에 대한 설명 없이 “전반적으로 둔화”라고 추정하여 경제위기를 강조한다.³⁾ 북한 연구에서 자신들이 자료를 찾기 못하면 없는 것이고, 없으니까 안 좋았다는 추측 방식은 스스로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역사학계의 북한 공업화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조수룡과 이주호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조수룡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이 소련의 압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급진적 사회주의 이행전략을 관철한 과정이며, 그 결과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사이에 형성된 것이 이른바 ‘자력갱생’ 경제라고 파악했다.⁴⁾ 조수룡이 1950년대 북한사 연구에서 소련과 중국 변수를 고려한 점, 3개년 및 5개년 계획의 작성·실행 과정을 소련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정리한 점,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북한의 지향이 나타난 배경과 동기, 실현과정에서의 굴절에 관하여 천착한 점 등은 큰 성과이다. 이주호는 북한의 공업화 전개과정에서 대외경제교류가 중요했다며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사회주의진영 ‘경제협력’ 개념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냉전기 북한 경제사 및 대외관계사를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확장에 기여했다. 특히 북한 중공업정책 추진에 대

2)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1953~1970)』(서울: 역사비평사, 2001), 75~79쪽.

3)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 변화』(서울: 선인, 2009), 142쪽.

4)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한 북한의 이니셔티브와 소련의 대응을 제철공업과 기계공업을 통해 실증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런데 북한 공업화를 다루면서 사건의 기본 흐름을 만드는 주체가 소련이고, 북한 연구자들은 그것을 단지 해석한 방식으로 서술한 점은 아쉽다. ‘사회주의공업화’에 대한 역사적 이해도 모호하다.⁵⁾ 역사학계 연구의 장점은 구소련 등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정리이다. 그런데 당시 북한의 일상을 반영한 북한 신문자료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조수룡과 이주호는 북한에서 ‘자력갱생’이라는 용어를 1961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잘못 서술한다.

과학기술사 전공자들은 북한 과학기술의 발전사와 구체적 내용 및 향후 가능성을 밝히는 데 성취가 있었다.⁶⁾ NK테크 등은 북한 과학기술사를 쉽게 설명한 웹서비스를 운영한다.⁷⁾ 하지만 북한 공업화 추진과 관련한 과학기술 진보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까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한국 학계에서는 유용한 이론 틀과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 대중운동, 기술혁신 등을 다뤘지만 북한이 ‘자립적 중공업화’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원(원료, 연료, 동력, 인적 자원)에 대한 관계를 소홀히 취급했다. 모두들 ‘중공업 우선 노선’에 주목했지만, 1953년 당 제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부터 추진을 방해받았던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국외의 대표적 성과로 이춘호(李春虎)는 조선로동당이 선택한 사회주의발전전략의 특징, 문제점과 미래 전망 등을 탐구했다.⁸⁾ 조은성은 비

5) 이주호, “북한의 공업화 구상과 북소경제협력(1953~1970년)”(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6)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서울: 선인, 2007); 김근배, “‘리승기의 과학’과 북한 사회,”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0권 1호(1998).

7) <http://www.nktech.net/main/main.jsp>(검색일: 2022년 10월 1일).

날론을 매개물로 주체과학, 일상생활 등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며 비날론이 주체의 산물이 아닌 주체 확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⁹⁾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공업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밝혀졌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만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동만이 설정했고 많은 연구자가 동의했듯이 1950년대 북한에서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전략과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를 추구한 세력’ 대 ‘상대적으로 온건하며 인민소비품 생산도 강조했던 세력’ 간 대립의¹⁰⁾ 실제 여부이다.

둘째, 북한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47년 북한 최초의 경제발전계획의 종합적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¹¹⁾ 이종석 등은 이것이 자립경제를 추구한다는 선언적 의미

8) 李春虎, 『戰後朝鮮의抉擇1945~1995』(서울: 大旺社, 2003); 李春虎, “朝鮮‘自主型’发展战略与社会主义工业化,” 『东疆学刊』, 第17卷 1期(2000).

9) Eun-sung Cho, “The Thread of Juche: Vinalon and Materially-Embodied Interdependencies in North Korea, 1930-2018”(Ph.D, Columbia University, 2020).

10) 서동만은 전후 복구건설을 둘러싼 세력구도에 대하여 “주로 연안계와 소련계들인 박창옥, 최창익, 박의완, 윤공흠 등이 경공업 중시노선을 대표”했고, “정부 수립 당시부터 국가계획위원장을 역임해왔던 정준택, 공업부문의 테크노크라트들인 정일룡, 김두삼, 리종옥 등은 전통적인 중공업 중시론자들”이었다고 분석했다.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313쪽.

11) 김일성은 “민족경제가 자립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해야 “경제의 기형적 식민지 성질을 숙청하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리 인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과업은 우리 경제의 편파성을 극복하며 모든 중요한 생산품과 필수품으로써 국가적 수요에 능히 공급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생활을 하도록 발전”시키자고 보고했다(“1947년도 북조선 인민경제 발전에 관한 보고, 김일성,” 『로동신문』, 1947년 2월 20일). 본 논문은 당시 북한 간행 신문자료를 김광은,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제1~160권(서울: 코리아테

정도라고 본다. 그리고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을 당의 공식노선으로 확장했다고 주장한다.¹²⁾ 과연 그랬을까? 자립적 경제발전노선은 언제 시작하며 시대적 맥락과 상황을 반영하며, 어떤 내용으로 자리 잡았을까?

셋째, ‘자력갱생’, ‘자립’, ‘주체’ 개념의 등장 시기와 배경, 의미에 대한 사실 규명 문제이다. 북한이 선택한 것은 ‘자본주의 공업화’ 또는 ‘예속적 공업화’가 아닌, ‘사회주의공업화’였다. 그런데 왜 그것에 ‘자력갱생’, ‘자립’ 등으로 수식했고, 이후 북한만의 독창적인 ‘주체적 공업화’라고 주장했을까?

종합하면 북한의 공업화에 대한 관련 연구 성과들은 연구목적의 차이와 연구방법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자료 선택과 활용에서 부족하다. 대체로 이용한 자료들에 대한 ‘편의성’과 ‘원본성’ 문제 등에 고민이 부족했고, 통계 이용도 문제가 많다. 그 결과 북한의 공업화과정을 분석할 때 외부 영향 또는 영도자의 역할을 과장하며 북한 노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의 삶을 소홀히 취급했다. 또한 역사 흐름 속에서 ‘주체’ ‘주체적’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945년부터 북한의 ‘주체적 공업화’ 토대를 준비한 1956년까지로 한다. 연구 폭과 깊이의 확장을 위해 1945~1956년 북한의 공업화 추진을 경제 측면과 함께 당시 북한의 대외관계도 함께 살폈으며 생산현장의 모습도 확인했다.

이터프로젝트, 2018~2022)으로 이용하였다.

1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275~284쪽; 김연철, “북한 산업화과정의 정치경제,”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경제』(서울: 경인문화사, 2006), 100쪽.

2.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원

‘사회주의공업화’란 1925년 12월 개최한 제14차 볼셰위끼당대회에 서 스탈린이 소련을 농업국으로부터 자력으로 필요한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업국으로 전환시키자고 제기한 것을 말한다.¹³⁾ ‘사회주의공업화’는 레닌-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 승리론’과¹⁴⁾ 소련 사회주의 건설계획의 본질을 반영했다.

1920년대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쟁했다. 한 그룹은 당과 국가의 적극적 리더십을 통해서 소련의 후진성을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기 위한 산업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 국가 계획 입안과 투자를 위한 자본 축적을 강조했다. 반대파는 시장의 작동을 활용한 소비모델에 토대한 산업화를 주장했다.¹⁵⁾ 스탈린은 먼저 중공업 발전을 선택했고, 그중에서도 기계공업과 연료산업 및 철 생산을 위한 원료산업을 확장시켰다. 국방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현대적 농기구 공장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 산업 또는 주도세력을 의미하는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소련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실천은 외국

13) “볼셰위끼 제14차 대표대회(1925년 12월 18일~31일),” 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 『斯大林全集』 第7卷(北京: 人民出版社, 1958), p.280.

14) ‘일국 사회주의 승리론’이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닌 농민이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후진국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가능성 특히 유럽 선진국의 원조나 발전과의 상관관계 문제이다. 레닌은 1910년대 말에서 1920년대에 걸쳐 일국 혁명의 결과로서 일국 사회주의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스탈린은 소련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산당 주도로 국내 생산력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며 일국 사회주의 승리 가능성을 1926년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를 통해 이론화했다.

15) 니콜라스 V. 라자놉스키(Nicholas V. Riasanovsky), 마크 D. 스타인버그(Mark D. Steinberg), 『러시아의 역사』 하권(서울: 까치, 2011), 744~746쪽.

의 차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이뤄졌다.¹⁶⁾ 소련공산당 제14차 대회는 ‘국가의 공업화 대회’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소련공산당은 공업의 계획화와 중공업 건설을 우선 추진한 결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에서 볼 수 없던 빠른 자립적 경제성장을 이뤄냈다.¹⁷⁾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공업화의 길을 걸었다.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내의 중공업 건설이었다. 헝가리는 1950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 특히 철강공업을 발전시켰다. 폴란드는 중공업 생산에서 전쟁 전 수준을 125% 초과했다. 루마니아는 도아타공장을 중심으로 전전보다 3배 이상의 강철을 생산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51년까지 전전 공업 생산량을 3배 초과했다. 낙후한 농업국가였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도 대규모 공업 건설을 진행했다. 이들 국가들은 새 공업부문도 만들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프락토르 생산, 불가리아의 기계 제작,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선박 건조 및 자동차 생산, 헝가리의 농업기계 제작 등이다.¹⁸⁾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공업화에 기초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도 전개했고, 1949년 이후 사회주의공업화의 전면 추진을 위해 5~6개년계획 수행으로 넘어갔다.¹⁹⁾ 그런데 이들 국가는 소련 원조를 통해서만 공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점차 소련과 한 개 블록으

16) “볼셰위키 제14차 대회 회의에 대한 공작총결(1925년 5월 9일),” 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 『斯大林全集』 第7卷, p.96, pp.110~111.

17) B. N. 포노말료프(Пonomarev) 외, 『소련공산당사』 3권(제3판)(서울: 거름, 1992), 122~128쪽.

18)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단계, 『이즈베스치야』지 평론,” 『로동신문』, 1951년 6월 19일.

19) “구라파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사회주의공업화의 전면적 발전,” 『로동신문』, 1953년 8월 27일.

로 묶였다.

중국은 1954년 9월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착취제도를 점차 제거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립을 규정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시점부터 사회주의 개조의 기본을 완성할 때까지의 과도기 당 총노선과 총임무로 사회주의공업화 실현을 설정했다. 국가의 독립과 부강의 필요조건으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과도기 총노선에 근거하여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을 짰다. 계획 제정 원칙은 1)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조건 아래 공업과 농업·중공업과 경공업 등 각 경제부문 사이의 발전에 균형 유지, 2) 건설계획과 자금축적의 균형 유지, 3) 먼저 중점공사 건설을 보증하고 동시에 지방에도 주의를 기울임, 4) 기존 공업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새 공업기지를 적극 건설하여 과거 경제발전의 불균형 상태를 고치고 경제건설이 국방안전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의함, 5) 축적과 소비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생산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 결합 등이다. 계획의 기본임무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초보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고, 중심은 중공업을 위주로 한 공업 건설이었다.²⁰⁾

소련의 경험은 사회주의적 공업화 추진으로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증명했다. 소련에서 ‘사회주의공업화’ 실천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배워야 할 모범이었다. 북한은 1949~1950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통해 “과거 일제가 남긴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민족자립적 경제토대를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민주 완전 자주 독립을 촉진시키며 근로인민들이 생활

20) 廖蓋隆, 『中國共產黨的光輝70年』(北京: 新華出版社, 1991), pp.238~242.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자 했다.²¹⁾ 북한이 당시 추진한 ‘사회주의 공업화’는 소련이 경험하고 성취했던 그리고 중국도 실현하려던 한 개 나라 단위의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 창설이었다.

3. 국가의 독립적 경제 기초 마련과 전시 군수공업 성장 (1945~1953)

1) 북한 공업화 조건과 폐허로부터 경제복구 조치들

해방 직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현실에서 민족자주성을 싹틔웠고, 자체 생산으로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장할 경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체 원료와 연료 및 기술에 의한 공업 건설이었다.

북한 공업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약점과 낙후성 해결에서 출발해야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의 공업화는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과 식민지 초과이윤 획득이 목적이었으므로 불균형적, 기형적이었다. 경제 각 부문, 공업 각 부문 간 구성과 배치에서 연계가 부족했고 완제품 생산도 없었다.²²⁾ 공업 배치에서 편파성도 커다란 문제였다. 일제는 패망하며 조선의 242개의 탄광과 광산을 완전 또는 부분 파괴했고 홍남공장, 성진제강, 청진제강, 황해제철을 비롯한 47개 공

21) “쓰말린과 사회주의공업화, 김책,” 『로동신문』 1949년 12월 21일.

22) “조선 중요산업의 현상과 그 국유화의 의의, 리청원,” 『로동신문』, 1946년 9월 14일; “자주적 기초가 닦여지며 새 기술로 장비되는 우리의 공업,” 『민주조선』, 1955년 7월 28일.

장들과 수풍발전소 등을 쓸모없게 만들었다.²³⁾ 따라서 일제가 파괴하고 간 공장과 광산 및 철도시설을 복구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업의 식민지적 기형성을 퇴치해야 했다. 일제에 의한 조선 공업화는 공업의 건설과 운영 경험 및 일부 생산시설을 남겼다. 전력 생산시설과 함께 광업과 홍남질소비료공장 등 제철, 화학 공업시설이 있었고, 그것을 운영해본 기술자들도 일본인들을 포함하여 존재했다.²⁴⁾ 북한의 초기 공업정책은 이런 물려받은 유산과 경험을 배경으로 나왔다.

소련군은 북한지역에 주둔하며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산업설비를 해체하여 소련으로 가져갔다. 38개소의 중공업공장들을 복구하여 2,050만 엔에 달하는 전리품과 1,410만 엔에 달하는 신제품도 아무런 보상 없이 반출했다.²⁵⁾ 소련은 북한의 중추 산업에 대한 통제권도 차지했고, 청진·나진·웅기 등 3개 항구에 대한 조차까지 시도했다.²⁶⁾ 소련군에 의한 북한에서의 경제 수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자금도 기술도 인재도 없었으며 공업을 건설해본 경험도 없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단계를 거치지 못했던 북한은 생산력 발전과제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단계에서 수행해야 했다. 더욱이 미국과 남한 반공세력의 적대행동

23)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의 북조선 민주건설의 성과와 그에 있어서의 위대한 쏘련의 원조에 대한 보고, 김두봉,” 『로동신문』, 1948년 12월 12일.

24) 『슈페르프 비망록』 1946년 10월 22일; “산업국 사업보고(4), 제3차 각 도 산업부장 및 국영 기업장 책임자회의에서,” 『로동신문』 1946년 12월 13일.

25)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제10호 (1993), 309쪽.

26)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항구 양도에 관한 지시(1947.6.28.),” 『북한관계자료집』 20권, 122쪽. 북한은 ‘공화국’을 수립한 후 소련의 경제 약탈에 앞장섰던 인물부터 공직에서 배제했다. 김광운, 『북한정치사』 1(서울: 선인, 2003), 73쪽.

상황에서 추진해야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건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당면과제로 제기했고, 우선 북한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실현하고자 했다.²⁷⁾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에 “공장과 제조소 광산과 탄광 발전소 철도 등은 모두 전 조선 인민의 소유로 돌아갈 것”²⁸⁾이라는 중요 산업 국유화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 과업으로 내세웠다. 당시 북한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지지한 사람들은 중요 산업 국유화를 “과거의 파행적 예측산업을 우리의 자주산업으로 전환하여 인민의 생활을 확보하고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진실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한 계획경제의 기초를 확립하게 된 것”으로 환영했다. 자립적 공업화를 위한 첫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²⁹⁾

김일성은 1945년 10월 2일에 평양병기제작소 자리를 방문하고, 자체의 병기공업 창설 포부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무기 제작은 기계공업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김일성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계공업에 앞서 병기공업을 창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방금 벗어났지만 또다시 미국과 맞서야 했던 상황에서의 대응이었다. 그 꿈은 1947년 6월 22일에 첫 병기공장

27) 김일성은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각급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초보적 민주정권을 건립”했다고 밝히며 “금후의 포부는 인민정권 자신이 선포한 당면과업을 적극 실시”라고 말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인민 총의의 정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 담화,” 『정로』, 1946년 2월 14일.

2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철도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발표에 대하여 조선 인민에게 고함, 김일성,” 『정로』, 1946년 8월 11일.

29) “산업국유화법령에 대하여 북조선공업기술총련맹 성명서 발표,” 『정로』, 1946년 8월 29일.

조업 선포로 이어졌다. 1947년 10월 6일에 자체 기술과 자재로 만든 첫 기관단총을 만들었으며, 1948년 초부터 대량 생산했다.³⁰⁾

2) 자립적 공업체계 준비

김일성은 1945년 10월 14일, 전체 인민이 정치에 참가하며 근로대중이 잘 살 수 있는 인민의 나라 건설을 위해 주권문제부터 해결하고, 민족경제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호소했다.³¹⁾ 김일성이 노동계급과 빈고농이 아닌 지식인과 자산가를 건국사업의 주체로 내세웠던 점은 인상적이며, ‘자립적 공업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1946년 10월 17일에 ‘제1차 북조선 과학기술인 전체대회’를 개최했다.³²⁾ 김일성은 당면과제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의

30) “주체적 군수공업의 탄생이 선포된 곳,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청년전위』, 2001년 2월 23일. 북한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주체조선의 자위적 국방공업 건설의 시작”이라고 의미 부여한다. 김혜련 외, 『절세 위인과 핵강국』(평양: 평양출판사, 2016), 100쪽.

31) 김일성, 『인민정권 건설에 대하여』,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104~111쪽. 연설 전문은 1978년 9월 5일 조선로동당출판사가 간행한 김일성,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이란 소책자에 처음 전문이 실렸으며, 같은 해에 『인민정권 건설에 대하여』, 제1권에 수록했다. 연설의 요약은 『조선중앙년감』 1949년판에도 있다. 김광은,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제1권(서울: 코리아데이터프로젝트, 2018), 156쪽.

32)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로동신문』, 1946년 10월 20일.

모든 자원을 세밀하게 조사 장악하고 우리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며 그 계획에 근거하여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간으로 우리 공업과 전체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제기했다.³³⁾ 김일성은 건국사업에서 ‘독립적 경제적 기초’를 갖기 위한 자기 과학자, 기술자 육성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후 계속 내용을 채우며 ‘자주적 공업’ 육성과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으로 발전했다. 1차 북조선 과학기술인 전체대회에서의 중요 결정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으로 종합기획기관을 설치하여 산업의 생산과 분배 계획화 및 자주 산업 건설을 기할 것 등이었다.³⁴⁾

3) 1947년 인민경제계획 수행

북한은 1947년부터 인민경제계획을³⁵⁾ 통한 계획적 경제건설을 시작했다. 1947년 2월 19일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 김일성은 “1947년도 북조선 인민경제 발전에 관한 보고”를 “우리는 산업의 중요한 부문과 운수 및 은행을 우리의 수중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인민경제를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를 환기”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민족경제가 자립적으로 발전될

33) “김장군 훈시 요지,” 『로동신문』, 1946년 10월 20일.

34) “과학기술인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1946년 10월 23일.

35) ‘인민경제 계획화’는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조직 지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주요한 통일적 지휘기능과 활동을 말한다. 인민경제 계획화는 계획 작성과 시달, 계획 실행 조직과 지도, 총화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어떻게 쏘베트인민은 쏘련에 사회주의를 건설했나,” 『로동신문』, 1947년 8월 21일.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기 위함이었다. 1947년 인민경제계획은 공업 생산량을 1946년도에 비하여 92% 늘릴 것을 예정했다. 주요 부문별 생산량은 화학공업 2배, 흑색금속공업 3배, 제강업 5.7배, 기계제작공업 2.5배, 경공업 0.6배였다.³⁶⁾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는 “조선의 자주경제 확립과 부강한 조국 건설의 제반 물질적 정신적 토대를 이뤄줄 1947년도 인민경제 발전의 거대하고 웅장한 인민경제 계획”을 통과시켰다.³⁷⁾

계획적 경제건설노선은 북한 경제의 나아갈 길과 자립적 공업화 지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줬다. 당시 산업방면 표어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 산업정책의 잔여를 하루바삐 청산함이 민족자립적 공업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 “산업 생산량을 1946년보다 92% 증가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책임이다. 지식과 경험과 열성을 다 바쳐 헌신 노력하자”, “유색금속품 생산의 증산 완수로 자립적 경제를 발전 부흥시키자”, “생활 향상의 기초되는 선철 강철 기타 흑색금속산업의 증산을 398% 완수함으로써 공업국가 건설에 적극 노력하자”, “생산품을 증가시키며 중노력을 감소시키는 기계공업 증산 242%를 완수하여 기계공업을 발전시키자”라고 선동했다.³⁸⁾ 민족자립적 공업국가 건설에 온 힘을 쏟자는 내용으로 철과 기계 등을 강조했다. 1947년 3월 2일 열린 제6차 당 중앙위원회는 “전 당은 이 임무를 위하여 연구하며 구체적 정형에 따르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자 당원들의 분공적 책임으로써 계획 완수를 보장할 것”을 결정하며³⁹⁾ 북한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36) 『로동신문』, 1947년 2월 20일.

37) “김일성 위원장 보고의 경제발전계획 지지 접수 열광적 환호리 인민회의 창립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대회,” 『로동신문』, 1947년 2월 20일.

38)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관한 표어,” 『로동신문』, 1947년 4월 4일.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정을 홍남지구 인민공장을 통해 살펴보자. 공장에서는 2/4분기까지 질소 부족으로 생산이 부진했다. 당원들로 조직한 질소진격대는 본공장에 있는 질소분리기 이전 공사에 착수했고, 다른 공장의 노동자와 주변 농민, 일반 시민, 학생까지 참가한 군중운동을 전개하여 완수했다. 9월 16일에는 비료공장의 80호분리기를 복구했고, 9월 30일까지 12호분리기를 복구했다. 당시 공장에 필요했던 인력 가운데 기술자 64%, 기능자 79%, 노동자 92%만 충원한 상태에서 공장 설비를 돌려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했다.⁴⁰⁾

최초의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은 1946년도에 비하여 국영산업 총생산액 226%, 노동생산성 2배 이상 향상시켜 102.5% 달성했다. 이어진 1948년 인민경제계획은 산업 총생산액을 1947년도 실적에 비해 41% 증가로 예정했다. 분야별 목표는 철강과 기계 생산을 1947년 실적에 비해 93%, 화학부문 143% 증가 등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장들의 복구, 확장, 신설했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도 확충했다.⁴¹⁾ 1947년 인민경제계획 완수는 인민정권의 위신을 높였고, 국가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확인시켰다.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및 민족적 독립을 보장할 오직 자주적인 민족적 인민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하며, 대책으로 “민족공업의 독자성 발휘”를 제기했다. 김일성은 “자립적 민족

39)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 부흥발전에 대한 예정숫자실행에 있어서 로동당 각급 당단체의 실질적 협조방침에 관한 결정,” 『로동신문』, 1947년 3월 18일.

40)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우리 직장 화학공업에 있어서의 거성, 홍남지구 인민공장 승리보,” 『로동신문』, 1947년 12월 31일.

41) “1947년도 인민경제 부흥 발전 계획에 관한 총결과 1948년도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대한 보고,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김일성 위원장 진술,” 『로동신문』, 1948년 2월 8일.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⁴²⁾ 새로 출범한 정부는 “자주적인 민족적 인민경제체제” 수립을 대내외에 공포했다. 이에 호응하여 흥남비료공장 근로자들이 제기한 생산경쟁운동을 함께한 결과 22개 기업소가 1948년 3/4분기까지, 90개 중요 기업소가 11월 말까지 계획을 완수하여 전년에 비해 139.1%, 1946년에 비해 2.6배 성장했다.⁴³⁾

4) 공업시설의 복구 확장

북한은 1949년부터 2개년계획을 작성하여 법령으로 발표했다. 최고 인민회의는 인민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1949~1950년 2개년계획과 관련한 과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⁴⁴⁾

…… 첫째, 현존 설비의 이용률을 고도로 높일 것이며 파괴된 기업소들을 남김없이 복구 운영하는 동시에 많은 생산설비를 신설 확장함으로써 1950년 총생산액을 1948년 생산실적에 비하여 약 2배로 성장시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발표,” 『로동신문』, 1948년 9월 11일.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1948년계획 실행 총결과 1949년~1950년 2개년계획, 정준택,” 『로동신문』, 1949년 1월 29일.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1948년계획 실행 총결과 1949년~1950년 2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로동신문』, 1949년 2월 4일.

키어 1944년 수준을 능가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인민경제의 급속한 부흥과 발전에 수응하여 성장하는 금속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야금공업을 더욱 확장할 것인바 특히 압연강재 생산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압연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 것이며 중소형 압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시킬 것이다. 셋째, 우리 산업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인민경제 각 부문의 수요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계공업과 조선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기계기구 및 부속품들과 중소형 선박들을 불원한 장래에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기초를 확립하며 특히 공작기계공업의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 것…….

위의 과업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49년에 들어서며 공장, 기업소를 대체로 복구했고, 생산설비를 신설 확장했다. 성장하는 경제 수요에 맞춰 야금공업을 확장했고, 가장 낙후했던 기계공업의 기초도 마련했다. 1949년계획은 노동자들의 증산경쟁운동에 힘입어 102.8%로 초과 실행했다.⁴⁵⁾ 2개년계획 실행으로 기계공업공장들은 시설을 확장하고 전문화했다. 중앙기계제작소는 공작기계, 룡성기계제작소는 화학기계, 북중기계제작소는 차량기계, 해주기계제작소는 철강기계, 문천 및 신의주기계제작소는 광산기계, 라흥 및 동평양 기계제작소는 농기구, 순안기계제작소는 계기제작 전문공장으로 자리 잡았다.⁴⁶⁾

1949년 2월 22일,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조·소 양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⁴⁷⁾ 이를 통해 “2개년 인민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1949년~1950년 2개년계획의 실행정형, 정준택,” 『로동신문』, 1950년 2월 27일.

4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281쪽.

경제계획을 급속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제국주의 예측으로부터 남겨진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여 우리의 인민경제를 완전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⁴⁸⁾ 의미를 부여했다. 초창기 북한 공업은 소련 원조와 기술협조 속에 식민지적 편파성을 극복하며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화’ 토대를 준비해 나갔다.⁴⁹⁾

공화국 내각은 1950년 6월 20일, 1951~1953년 3개년 인민경제계획 실시를 결정하고 국가계획위원회에 작성을 지시했다.⁵⁰⁾ 그러나 전쟁 발발로 추진하지 못했다.

5) 전시 군수공업 성장

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의 공장 기업소들도 전시상황에 적응하게 개편했고, 기본생산계획의 보장과 함께 병기와 군수용품 생산에 주력했다. 그러나 1950년 8월 말에 이르러 흥남비료공장 분공화학공장 황해 제철소 성진제강소 청진방직공장 등 52개 중요 기업소가 미군 폭격으로 기본생산을 정지했다. 원료 자재 제품도 크게 부족했고, 공장의 많은 관리간부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전쟁으로 흩어졌다.⁵¹⁾

47) “쏘련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일행 귀국,” 『로동신문』, 1949년 4월 8일.

48) “정부대표단 귀국환영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답사,” 『로동신문』, 1949년 4월 8일.

49) “조·쏘 양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주년에 제하여, 김일성,” 『로동신문』, 1950년 3월 17일.

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128호 공화국 북반부의 새 인민경제계획 작성 준비에 관한 결정서,” 『로동신문』, 1950년 6월 22일.

51) “전쟁 개시 후 산업성 산하 기업소들의 사업정형에 관한 보고(요지), 정일룡,” 『로동신문』, 1951년 3월 5일.

조선로동당은 생산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 공장의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압연기들을 안전지대에 옮겨 생산을 계속했다.⁵²⁾ 1950년 12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북한 인민들이 전선에 군수품 보장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병기공장 등 군수공업에서 생산계획을 전쟁 이전 시기에 비해 5배, 6배로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⁵³⁾

김일성 수상의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처음 공개적으로 ‘자력갱생’ 주장이다.⁵⁴⁾

…… 소련 인민들이 도와주며, 중국인민지원부대들이 나와서 형제적으로 도와주니 승리는 꼭 우리의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저 안일하게만 지나고 긴장성 없이 주도적 창발성이 없이 남이 해놓은 것으로 그저 향락만 하려는 자들은 다 위험한 분자들이며 망국노를 면할 수 없는 위험한 경향입니다. 누가 어떻게 도와주든지 간에 우리 문제는 자신의 손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주인은 우리 조선 인민입니다. 주인이 더 많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고무자이며 조직자는 우리 로동당입니다. 로동당원이 근로인민의 핵심이며 주동적 선봉이며 창발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력갱생 여하는 우리 당 사업과 우리 인민군 투쟁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 (고덕체는 필자 강조)

52) “우리나라 금속공업의 획기적 발전, 강영창,” 『조선인민군』, 1958년 7월 22일.

5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현 정세와 당면과업,” 『로동신문』, 1951년 1월 2일.

54) 위의 신문, 1951년 1월 2일. 김일성 위원장의 ‘자력갱생’ 제창은 이후 조선로동당의 혁명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김일성은 국가 발전전략의 기준으로 “우리 민족의 자력갱생”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인민이 국가, 정권, 생활의 주인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인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원칙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사실상 소련과 중국이 북한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던 파국적 상황에서 독자성을 지켜 내기 위해 ‘자력갱생’을 제기했다.

김일성은 1951년 10월 15일, 산업상 정일룡에게 “자체의 힘으로 기계공장 건설”을 위해 희천기계공장을 만들라고도 지시했다.⁵⁵⁾ 희천기계제작공장 건설은 1951년 11월에 착수했다. 조선로동당은 전국 각지에서 기계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을 소환하여 희천에 보냈다. 김일성은 1953년 2월에 공장 건설장을 찾아서 “현재는 전쟁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전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데 필요한 공작기계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의 공장 규모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므로 본래 예견한 규모대로 공장을 빨리 완공해야 하겠다. 동무들이 건설하는 이 공장은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모체공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희천기계제작공장은 북한의 첫 최신식 공작기대 생산공장이다.⁵⁶⁾ 그 외에도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17개 기계제작공장을 가동시켰으며, 금속, 화학 등 기간공업 복구와 비날론의 공업적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준비도 진행했다.⁵⁷⁾

55) 김일성, “희천에 기계공장을 건설할데 대하여, 산업상에게 준 지시(1951년 10월 15일),” 『김일성전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96쪽.

56) “희천기계제작공장 조업식 거행,” 『로동신문』, 1954년 7월 28일: “아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영광의 땅 희천과 더불어 영원할 이야기,” 『로동신문』, 1972년 12월 3일.

57) 리영환 외,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222쪽.

4. ‘자립적 중공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 마련(1953~1956)

1) 1953년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와 ‘자립적 중공업화’ 추진의 굴절

3년간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 피해는 4,200여억 원에 달했다.⁵⁸⁾ 8,700여 공장, 60만호 주택, 5,000개 학교, 1,000개 병원 및 진료소, 263개 영화관과 수천 개소의 문화후생시설들이 파괴당했다. 전쟁의 결과 1953년 공업 총생산액은 전쟁 전에 비하여 4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연료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발전소, 건재공업 생산액은 66~93%로 줄었다. 코크스, 선철, 동, 연, 화학비료 생산시설은 완전히 없어졌다.⁵⁹⁾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 자금과 자재 모두가 부족했다. 때문에 복구 건설의 선후차를 어떻게 정하여 역량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김일성은 정전협정 체결에 즈음한 방송연설에서 “전후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함에 전 인민적 총역량을 집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복구함에 있어서 공업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공업 복구의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의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수립하여 전쟁행정에서 나타난 공업의 결함들을 시정하고 일제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절하며 중공업의 확장과 인민

58) 4,200억 원은 전후 3개년 인민경제계획시기 북한 1년 평균 투자액의 약 15배이다. 김기남, “우리 당 경제정책의 과학적 기초,” 『근로자』, 제4호(1957), 30쪽.

59)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 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보고, 박창옥,” 『로동신문』, 1954년 4월 22일. 이 보고는 전후 최초의 공식 피해보고이다.

생활 안전을 위한 공업들을 급선무로 복구 건설함에 치중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제철공업, 기계공업, 병기공업, 광업, 전기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철도 운수 및 방직공업들을 점차적으로 복구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⁶⁰⁾ 김일성은 자립적 공업 창설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공업화노선의 계속 추진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 속에는 향후 건설해 나가야 할 공업의 사명, 공업의 총체적 구조, 힘을 쏟아야 할 단위까지 들어 있지만 공업 건설의 근본방향 실현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대한 언급은 모호했다. 김일성은 정전된 지 3일 만에 황해 제철소를 찾아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 데는 중공업부터 해야 …… 중 공업을 발전시켜야 경공업과 농업도 따라서 발전하게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 수 있다”라고 원칙을 확인했다.⁶¹⁾

조선로동당의 전후 복구 건설 기본노선과 원칙은 1953년 8월 5~9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⁶²⁾

정전과 관련하여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방향과 국가의 공업화와 인민들의 물질문화 복리 향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반석같이 다지는 위대한 전망을 명시하는 수령의 보고는 회의 참가자들의 깊은 감명과 환희를 일으켰으며 우리와 같은 박

60) “정전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연설,”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호외.

61) “공화국 기치하에 20년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1,211고지’: 믿음직한 금속공업기지, 황해제철소를 찾아서,” 『로동신문』, 1968년 7월 3일.

6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역사적 제6차 전원회의,” 『로동신문』, 1953년 8월 11일.

수에 의하여 여러 번 중단되었다. …… 수령의 부름에 호응하여 새 맹세와 굳은 결의들을 표명하는 승리자들의 토론이 광범히 전개되었다. …… 토론이 끝난 다음 김일성동지는 장내를 뒤흔드는 영광적인 환호와 박수 속에 첫 문제에 대한 결론을 했다. ……

그런데 김일성의 보고는 관례를 깨고 『로동신문』 등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다. 김일성이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 것은 분명하다. 중공업성 기사장 정삼룡은 바로 다음 날 『로동신문』에 발표한 대회 참관기에서 “정전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공업 복구의 기본방향을 중공업의 확장과 인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업들을 급선무로 복구 건설함에 치중하여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시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⁶³⁾ 그러나 “토론이 광범히 전개”된 후 공업 복구 발전의 방향과 원칙을 일부 바뀌어야 했다. 보고 전문은 안팎의 갈등을 해결한 한참 후에 공개했다.⁶⁴⁾

김일성 수상의 사회주의공업화 기본원칙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보고와 토론에 이어진 김일성 수상의 결론 역시 회의가 끝나고 약 20여 일이 지난 후에 “금번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의 기본과업은 우리 조국의 혁명적 원천지 - 민주시기를 공고히 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인민

63)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과 기본건설일군들의 과업, 정삼룡,” 『로동신문』, 1953년 8월 6일.

64)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3년 8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1~64쪽.

경제를 복구하며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그리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을 꺾기시키는데 있다”라고 공개한⁶⁵⁾ 이유는 또 무엇이였을까?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조선 공업은 국가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수립하며 전쟁행정을 통하여 공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퇴치하며 일본제국주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업 발전의 편파성을 퇴치하며 군수공업을 확장하며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의 개선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복구 건설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일반적 표현만 있다.⁶⁶⁾

전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부문은 중공업이었다. 1953년 공업 총생산액은 1949년과 비교해 64% 감소했으며, 그 가운데 생산수단과 소비재의 비중은 59% 대 41%로부터 38% 대 62%로 바뀌었다.⁶⁷⁾ 이런 형편에서 생산수단 비중을 높일 중공업의 우선 발전은 국방력 강화 필요성까지 고려할 때 공업 건설 근본 방향 실현의 원칙이지만, 전원회의 결정서는 김일성의 보고대로 답지 못했다.⁶⁸⁾ 소련이 10억 루

65)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로동신문』, 1953년 8월 30일.

66) “‘정전협정 체결과 관련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과 당의 금후 임무’에 대하여(전원회의 제6차 회의 결정서 1953년 8월 5~9일),” 『1953년도 전원회의 정치·조직·상무 위원회 결정집(1952.12~1953.12)』, 2~34쪽.

67) 전석담, “조선로동당의 영도하에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그 의의,” 과학원 역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연구실 엮음, 『역사논문집 4: 사회주의 건설편』(1960), 24쪽.

68) 지금까지 남한 학계의 주류 견해는 김일성 수상의 ‘중공업 확장과 급전부 복구’방침을 회의에서 관철한 것으로 서술했다[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1953~1970)』, 76쪽;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서울: 선인, 2005), 604쪽]. 조수룡은 김일성의 보고를 ‘사후 개작’으로 보면서도 이 부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42~44쪽].

블⁶⁹⁾ 원조를 조건으로 공업 발전 방향의 수정을 요구했고 박창옥 등이 추종한 때문이다.⁷⁰⁾

‘사회주의공업화’를 하려면 방대한 자금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김일성도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금이 없이는 인민경제를 복구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우리 앞에는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⁷¹⁾ 자금 확보를 소련 등의 원조로 해결하면서 사회주의공업화 기본원칙이 가려졌다.

1953년 9월 11~19일, 모스크바에서 김일성 수상과 소련 말렌코프 수상 및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비서의 회담 결과 소련 정부가 무상으로 배당한 10억 루블을 수풍발전소·성진제강소·김책제철소·홍남비료공장·승호리셰멘트공장 복구와 건설, 방직품비나트·육류품비나트·어류통조림공장 건설에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복구에 필요한 기계시설품과 자재 및 대중소비품 공급, 공장 설계사업과 기술문건 제공도 합의했다.⁷²⁾ 소련 방문 정부 대표단 환영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⁷³⁾

69) 10억 루블은 1950년 환율로 미국 2억 5천만 \$의 금액이다. 와이차코프스키, “소련의 가격체제와 루블 환율,” IMF eLIBRARY.

70) 소련이 10억 루블 원조를 공표한 것은 1953년 8월 8일이다.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 경과보고, 김일성,” 『로동신문』, 1953년 12월 22일.

71)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3년 8월 5일),” 50~54쪽.

72) “소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소련-조선콤무니케,” 『로동신문』, 1953년 9월 21일.

73) “소련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김일성 원수의 귀환 보고,” 『로동신문』, 1953년 9월 30일.

…… 원조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 인민경제는 그 복구 발전에 있어 물질적 담보를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최단기간 내에 전전 수준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특히 중공업부문에 있어서 많은 기업소들이 전쟁 전보다 더욱 확장될 것이며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에 있어서는 전쟁 전에 볼 수 없던 여러 새 공장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공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로 우리 인민경제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을 가지게 되는 것 …… 우리는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문제를 조선인들 자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할 것 …… (고덕체는 필자가 추가)

김일성은 자신이 하고자하는 복구 건설의 방향과 원칙을 대중을 직접 상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북한의 풍부한 원료자원,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인민의 자신감, 비록 파괴 되었으나 원래 일정한 토대가 있던 중공업, 소련 등의 원조를 함께 고려하여 비우호적 현실에 대응해 나갔다.⁷⁴⁾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문제를 조선인들 자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할 것”, 즉 ‘자력갱생’ 원칙도 잊지 않았다.

북한은 생산수단과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업의 두 부문을 다 갖춘 현대적 공업을 건설해 나갔다.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공업을 국내의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추진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중공업에 대

74) 당시 조선로동당 내 다수는 중공업의 우선 발전을 레닌적 원칙과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경험을 북한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이라고 이해했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완수는 우리 인민경제 발전에서의 획기적 전변, 류찬기,” 『로동신문』, 1959년 8월 22일; “해방 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 공업, 림계철,” 『로동신문』, 1959년 8월 6일.

한 선택과 집중은 없었고,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의 배합과 균형을 추구했다.

1953년 11월 23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경제 및 문화 합작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 김일성과 모택동은 전쟁 기간에 조선 인민에게 원조하여 준 일체 비용과 물자들을 무상으로 북한에 증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 복구 건설에 요구되는 중국 인민폐 8억 원을 제공받았다.⁷⁵⁾ 1953년에 받은 원조물자는 양곡 10만 톤, 대두 3만 톤, 직물 수천만 미터 등이다.⁷⁶⁾ 1954년부터 1955년 8월 말까지 중국이 보낸 물자는 양곡 29만 9천여 톤, 면포 7천 5백만 미터, 면화 1만 7백여 톤, 석탄 1백 45만여 톤과 기타 수천 톤의 생고무 등이었다. 북한에 남아 있던 중국인민지원군도 대동강철교 등 16개 교량과 4개 터널 및 73km에 달하는 철로 부설에 협조했다.⁷⁷⁾

김일성은 동유럽 인민민주주의국가들도 방문하여 지원을 이끌어 냈다. 1953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6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 국가 방문보고를 통해 “원료의 출처와 제품의 용처를 과학적이며 현실적으로 타산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업의 다면성과

75) “조·중 량국 간의 경제 및 문화 합작의 공고 발전,” 『로동신문』, 1953년 11월 26일. 중국은 1955년 3월 1일에 신화폐를 발행했다. 신화폐 1원은 구화폐 10,000원이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중국의 신화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조중 양국 인민 간의 친선과 경제문화 협조의 발전,” 『로동신문』, 1958년 11월 23일.

76) 『로동신문』, 1953년 12월 22일.

77) “6억 형제들의 국제주의적 원조,” 『로동신문』, 1955년 11월 23일. 중국이 북한에 준 8억 원 무상원조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4년 동안 물자와 현금으로 전부 사용 완료한 후, 1958년 12월 29일에 결산의정서를 조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제공한 무상원조를 결산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대한 보도,” 『로동신문』, 1958년 12월 30일.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고립·폐쇄가 아닌 사회주의블록과의 국제분업 및 교역발전을 주장했다.⁷⁸⁾ 이것이 전후 복구 발전의 기본지침인 ‘자립적 중공업화’의 당시 기본 내용과 원칙이다.⁷⁹⁾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이 제공하지 않았던, 하지만 북한에게 가장 절실했던 기계제작공업을 지원했다. 체코는 희천자동차부속품제작공장, 희천기계제작공장,⁸⁰⁾ 폴란드는 서평양철도공장과 각 철도공장,⁸¹⁾ 헝가리는 구성공작기계공장 등,⁸²⁾ 동독은 디젤엔진제작공장⁸³⁾ 건설을 도왔다. 동유럽 인민민주주의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 총액은 약 9억 루블이다.⁸⁴⁾ 전체적으로 전후 북한에 대한 국가별 원조는 중국이 57%였고, 소련이 약 36% 정도였다.

78) 『로동신문』, 1953년 12월 22일.

79) 김일성의 ‘공업의 다면성과 자주성’에 대한 인식은 자체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1958년 3월 6일 조선노동당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경제건설”을 주장하며, 그것은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완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즉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소련블록과의 갈등을 반영하며 북한의 자립경제 건설에서 국제적 연관성이나 분업에 대한 언급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의지 또는 선택이기보다 소련공산당이 조선로동당에 대하여 “‘교조주의’니 ‘민족주의’니, ‘쓰팔린주의’니 하는 모자를 씌우고 그들을 뿌리치며 사회주의진영에서 따돌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1962년 3월 8일),” 『김일성전집』, 제2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131쪽.

80) “우리는 자동차부속품제작공장을 이렇게 건설했다. 주병선,” 『로동신문』, 1954년 7월 28일; “희천기계제작공장 조업식 거행,” 『로동신문』, 1954년 7월 28일.

81) “파란 기술자들의 형제적 원조,” 『로동신문』, 1954년 7월 6일.

82) “구성공작기계공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1959년 8월 13일.

83) “독일 기술자들은 우리의 복구 건설을 돕고 있다,” 『로동신문』, 1955년 3월 15일.

84) 김상학,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공업화의 특징,” 『근로자』, 제10호(1957), 92쪽.

김일성은 1954년 3월 21~23일 개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의 보고에서 1954~1956년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의 3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56년에 이르면 1949년에 비해 산업이 153% 성장하여 “수다한 새 현대적 공장들이 건설되어 조업을 개시”할 것을 약속했다.⁸⁵⁾ 조선로동당은 소련과의 협력 유지를 위해 박창옥을 내각 부수상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⁸⁶⁾ 전임 정준택은 화학건재공업상으로 자리를 바꿔 핵에너지문제를 담당했다.⁸⁷⁾

85) “산업운수부문에서의 제 결함들과 그를 시정하기 위한 당 국가 및 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당면과업, 김일성,” 『로동신문』, 1954년 3월 25일.

86) 박창옥은 1956년 1월 4일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당 정책을 반대하면서 왜곡 집행했다고 공개 비판받고 사라졌다(“평양시당 열성자회의에서,” 『로동신문』, 1957년 3월 22일). 박창옥에 대한 비판 내용은 1957년 9월 10일, 기계부문전국열성자회의에서 정일룡 부수상의 보고 가운데 “형제국가 인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원조를 국가의 공업화를 위한 생산수단의 장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생활필수품의 충당에만 소비”였다(“기계공업부문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기계부문전국열성자회의에서 한 정일룡 부수상의 보고,” 『로동신문』, 1957년 9월 11일).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정일룡의 ‘반당·종파분자’ 모자 씌우기를 따라서 커다란 논쟁이 있었던 듯이 서술했다. 진실은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브가 박창옥에게 소련의 농업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자 “우리에게는 그럴 겨를이 없다. 우리의 임무는 공업을 되살리는 것 …… 공업이 복구될 때까지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한 데 있다(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2 문서철; 68 문서; 3, “조선 주재 소련 임시 대리대사 라자레브(Лазарев) 일지(1953.9.12.),” 『조선 주재 소련대사관 직원들의 면담록(1953.1.31.~12.12.)』]. 박창옥의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형편과 공업구조의 제 특질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공업 자체의 생산물 구조를 규정했던 것이다. 그들은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대규모적 설비들의 생산에 주되는 힘을 기울이면서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부속품들의 생산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방호식, “우리나라 공업부문별 구조의 변화와 기계제작공업의 과업,” 『근로자』, 제1호(1958), 72쪽.

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명령,” 『로동신문』, 1954년 3월 27일. 그

김일성은 소련과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⁸⁸⁾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경제건설 기본노선을 계속 수행했다. 조선로동당과 내각 등에서도 『김일성선집』을 계속 간행하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김일성 원수의 제 노작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자”라고 선동했다.⁸⁹⁾ 이에 따라 당과 국가기관, 기업소들에는 전후 복구 건설 승리를 위한 『김일성선집』 연구 사업을 조직 진행했다.⁹⁰⁾ 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가리켰던 사회주의공업화의 기본노선, 근본원칙은 향후 북한 발전의 궤도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체’를 떠올릴 때에 정치에서의 자주보다 경제에서의 자립이 실천적으로 우선했다고 봐야 한다.

2) 3개년 인민경제계획(1954~1956)의 수행과 ‘자주적 중공업화’ 추진 기초 마련

북한 내각은 1954년 4월 22일에 “1954~1956년 인민경제 복구 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초안”을 발표했지만 어디에도 김일성의 자립적 중공업화를 우선으로 한 공업 추진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⁹¹⁾ 최고인

의 이동은 북한에서 핵물리학 발전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의 참가문제와 관련 있다. “합동핵연구소 조직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정준택 단장의 귀환담,” 『로동신문』, 1956년 4월 7일. 소련은 1951년 10월 원자탄 소유를 공식화했고, 1953년 8월 8일 수소탄 소유도 발표했다. 북한은 소련의 군비 확장을 지지하며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쏘련의 수소탄 소유는 세계 평화에 대한 거대한 기여,” 『조선인민군』, 1953년 8월 23일.

88) 소련의 북한에 대한 3개년계획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52~55쪽.

89) “김일성 원수의 로작들은 우리 승리의 지침이다,” 『민주조선』, 1953년 9월 25일.

90) “『김일성선집』, 제4권을 깊이 연구, 평양시인민위원회 정무원들,” 『민주조선』, 1953년 9월 25일.

민회의 위원장 김두봉에 따르면, “(당은) 중공업 특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금속, 기계제작, 건재 및 화학공업과 그와 관련하여 전력, 석탄공업을 우선적으로 복구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길을 택했으며 지금도 이 길을 따라 계속 전진”했는데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당의 이러한 정당한 정책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비난 중상하거나 또는 왜곡 시비”했다고 비판했다.⁹²⁾

조선로동당은 소련의 견제와 박창옥 등의 시비에 공개적 논의를 피한 채, 공장 기업소 등 현장에서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1954년 5월 25~27일 열린 중공업부문 전국열성자대회에서 중공업상 정일룡은 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의 수령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민주기지를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후 복구 건설 사업의 성과적 수행에 총결기할 것을 강조했다.⁹³⁾ 대회에서는 “김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생산 및 건설 계획의 기간단축 및 초과완수를 위한 중산운동을 적극 조직 전개”와 “중요 복구대상의 조업 개시기일 단축” 보장을 약속했다.⁹⁴⁾ “중공업부문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는 “중공업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간공업으로서 인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향상시킴에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국가계획의 무조건적 수행 등을 결의했다.⁹⁵⁾

91) 박창옥, 위의 보고, 『로동신문』, 1954년 4월 22일.

92)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은 승리하고 있다, 김두봉,” 『로동신문』, 1957년 2월 15일.

93) “중공업부문 전국열성자대회 개막,” 『로동신문』, 1954년 5월 27일.

94) “김일성원수에게 드리는 편지, 중공업부문 전국열성자대회,” 『로동신문』, 1954년 5월 29일.

95) “중공업부문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중공업부문 전국열

북한은 각 공장들의 열성자회의를 통해 생산 양양이 일어나도록 힘썼다. 1954년 6월 6일, 황해제철소 제1호 평로 출강식에서 근로자들은 “강재를 다량 생산하며 3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첫해인 금년도 국가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진술하신 당신의 교시를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여 부과된 생산계획을 단축하여 실행할 것을 맹세했다.⁹⁶⁾ 북중기계제작소 노동자들은 1954년 6월 18일, 1954년도 생산계획 완수를 기계제작공업부문 전체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⁹⁷⁾ 1954년 7월 17일 개최한 홍남비료공장 종업원대회에서는 “김일성 원수의 교시를 우리들의 행동강령으로 삼고 8·15 해방 9주년을 경축하는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생산부문에서 노동생산능률 125% 이상으로 제고”하겠다고며 증산경쟁운동 총결기를 호소했다.⁹⁸⁾

노동자들의 증산경쟁운동은 새로운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중공업분야에서 이것을 이끈 성진제강소 기사 김형욱, 희천기계공장 선반공 김원식, 희천자동차부속품제작공장 기계기사 박충상 등은 소련 유학을 했던 기술자들이다.⁹⁹⁾ 왜냐하면 1955년 1월 현재 공업부문 기계설비 중 소련 등에서의 수입 비중이 90~

성자대회,” 『로동신문』, 1954년 5월 29일.

96) “김일성원수에게 드리는 편지, 황해제철소,” 『로동신문』, 1954년 6월 8일.

97) “전국 기계제작공업부문 전체 노동자들에게 8·15경축증산 경쟁운동을 호소, 북중기계제작소 노동자들,” 『로동신문』, 1954년 6월 28일.

98) “전국화학공업부문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홍남비료공장 종업원대회,” 『로동신문』, 1954년 7월 21일.

99) “위대한 쏘련의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 김형욱,” 『민주조선』, 1954년 8월 14일; “나는 폴레쓰브 바이트를 창의 개조했다,” 『로동신문』, 1954년 9월 4일; “꼬알료브 선진 작업방법을 도입 적용,” 『로동신문』, 1954년 10월 9일.

98%였기 때문이다.¹⁰⁰⁾ 북한의 당시 사회주의공업화 추진은 소련과 깊게 연결된 것이었다. 김일성도 “소련 학자들에게서와 전문가 기술자들에게서 우리는 허심하게 겸손하게 어깨를 낮추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¹⁰¹⁾

김책제철소 제1호 용광로의 조업 개시과정을 살펴보자. 전쟁시기 미군 공습으로 부서졌던 용광로를 조업하려면 해탄, 내화물, 공무, 동력 등 부대설비 복구를 먼저 수행해야 했지만 기능공들이 적은데다 경험 있는 사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김책제철소는 복구공사계획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소요되는 기자재 해결을 위한 내부원천 동원을 군중운동으로 전개했다. 복구사업에는 일제가 파괴했던 용광로 복구경험이 있는 안재철 부기사장, 한기창 제선직장장 등과 함께 소련 기사 만다렌코 등의 기술 원조가 있었다. 제1호 용광로는 1955년 5월 15일에 조업을 시작했다.¹⁰²⁾

북한이 1955년을 전후하여 ‘주체’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은 ‘주체’를 제기하고도 현실 정치에서 주춤했다. 그 이유는 소련으로부터의 선진 과학 기술 도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¹⁰³⁾ 북한은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원자력 분야에서도 소련과 협력했다.¹⁰⁴⁾ 1956년 7월, 모스크바에서는 “연합원자핵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이 있었다. 이 회의에 북한

100) 김상학, “중공업은 국가 공업화의 기초,” 『근로자』, 제11호(1955), 69쪽.

101) “소련을 향하여 배우자,” 『로동신문』, 1955년 8월 23일.

102) “용광로에 불길에 올랐다,” 『민주조선』, 1955년 5월 17일.

103) “위대한 소련은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이다, 리기영,” 『로동신문』, 1957년 8월 13일.

104) 1961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85년 재개했다. “조·소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친선 단결은 영구불멸하리!” 『로동신문』, 1985년 8월 17일.

〈표 1〉 전쟁 전후 북한 공업 총생산액 변화

(단위: %)

	1948	1949	1951	1952	1953	1954	1955
총생산액	100	337	157	178	216	326	485

주: 1948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1946~195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및 문화 발전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56년 5월 16일.

은 화학공업상 정준택이 참가해 서명했다.¹⁰⁵⁾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추진되던 상황에서 ‘주체성’을 대놓고 옹호하기 어려웠다. 소련의 원조와 함께 그들의 과학 기술을 배우며 자립적 공업화의 밑천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북한 중공업부문은 1954년에 자립적 공업화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중요 생산설비들을 적지 않게 복구 확장했다. 자체 생산하지 못했던 직류 발전기를 비롯한 전기기계, 신형선반, 금속절삭공작기계, 광산기계, 축력파종기, 제초기 등을 새롭게 생산했다.¹⁰⁶⁾ 1955년 11월 말까지 연간 계획을 완수한 기업소 수는 182개에 달했다. 공업 총생산액도 1949년 실적에 비해 140%, 1953년 실적에 비해 241% 높였다. 특히 중공업부문에서는 선철 115%, 특수강괴 251%, 전동기 생산 199%, 변압기 생산 134%를 초과 완수했다.¹⁰⁷⁾ 당시 공업의 심장이라고 불린 기계공업에서는 최신 공작기계를 전년보다 1.5배 더 많았던 1956년 생산계획을 12월 25일까지 118.9% 초과 실행했다. 처음으로 착암기도 생산했

105) “연합원자핵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 『로동신문』, 1956년 7월 15일.

106)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 축성의 길에서,” 『민주조선』, 1955년 12월 30일.

107)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달성한 창조적 노력성과, 강설모,” 『로동신문』, 1955년 12월 30일.

다.¹⁰⁸⁾ 전쟁을 전후한 북한 공업 총생산액 변화는 <표 1>과 같다.

<표 1>를 보면 북한정권 수립 후 공업 총생산액은 현저히 성장했지만 전쟁 기간 급속히 감소했다. 1951년에는 1949년에 비해 47%로 감소했고 이후 점차 회복하여 1954년에 이르러 전쟁 전 수준에 도달했다. 1955년부터 또다시 가파르게 성장했다.

공업의 부문별 구성도 변화하여 가장 낙후했던 기계공업과 금속가공업의 비중이 1944년 1.6%로부터 1949년 8.1%, 1955년 17.9%로 높아졌다.¹⁰⁹⁾ 북한 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적 중공업화’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1950년대 중반 북한이 꿈꾼 자주적 공업이란 “(제철소의) 해탄로가 돌고 용광로가 쇳물을 뽑고 대형 평로가 선철을 녹여 강괴를 만들며 각종 철제품들을 생산하게 될 때 …… 강철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보낸 소재로 건조된 튼튼한 선박들이 연료와 원료를 실어오고 더욱 다양하고 많은 강재를 기계제작소로 싣고 가는 선박들을 보게 될 것이다. …… 기계공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철공업이, 제철공업에서 받은 원료로 최신식 공작기계며 제철 제강의 대형부속품을 깎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업 ……”이었다.¹¹⁰⁾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는 북한 ‘자립적 공업화’의 전환기였던 1956년 4월 23일에 개막했다. 김일성은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은 우선 중공업 즉 생산수단의 생산이 담당

108) “년말 승리의 보도, 희천정밀기계공장 연간계획을 초과 완수,” 『로동신문』, 1956년 12월 28일.

109)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김일성,” 『로동신문』, 1956년 4월 24일.

110) “자주적 기초가 닦여지며 새 기술로 장비되는 우리의 공업,” 『민주조선』, 1955년 7월 28일.

할 것”이라며,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키겠다고 사회주의공업화노선을 다시 확인했다. 더불어 “인민경제의 전반적 발전의 기초로 되는 금속, 전력, 기계, 석탄, 화학 및 건재 공업부문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한 고리로 되고 있는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총노선을 제시했다.¹¹¹⁾

김일성은 남한 경제를 언급하며 “중요 생산시설들은 미국 과잉상품으로 실어온 원료 기자재에 결정적으로 의존”케 함으로써 “예속의 기형성이 더욱 심각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회의에서 금속공업상 강영창은 “야금공업을 자체의 원료와 연료로써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국내 원료로써 철코크 제조와 수입탄을 대체할 무연탄가스화 연구 및 공업화를 주장했다. 소련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과학 발달의 수준 때문에 교역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불만도 말했다.¹¹²⁾ 두 사람의 보고와 토론은 북한 공업화의 근본원칙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들의 힘, 자재, 기술로 만들어 써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1957년 2월 22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3개년 계획 기간에 240여 개의 공업기업소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여 완전 또는 부분 복구 확장했다. 또한 기양기계공장 등 80여 개 공업기업소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요 공업제품 생산능력은 1957년 1월 현재로 1954년 1월에 비해 전력 3.4배, 강철 13배, 압연 강재 3.2배, 합금철 3.7배, 카바이드 12배, 면직물 3배로 성장했다. 1956년에는 1953

111) 김일성, 위의 총결 보고, 『로동신문』, 1956년 4월 24일.

1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결보고에 대한 토론, 강영창 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1956년 4월 25일.

년에 비해 생산수단 생산은 4배, 소비재 생산은 2.1배 성장했다. 3개년계획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의 연평균 성장속도는 42%(그 가운데 생산수단 생산 59%, 소비재 생산 28%)에 달했다. 이로써 전후 3개년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우선 성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의 복구 발전을 도모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였다.¹¹³⁾ 『로동신문』 등은 이 같은 결과를 ‘자랑스러운 승리의 총화’로 선전했다.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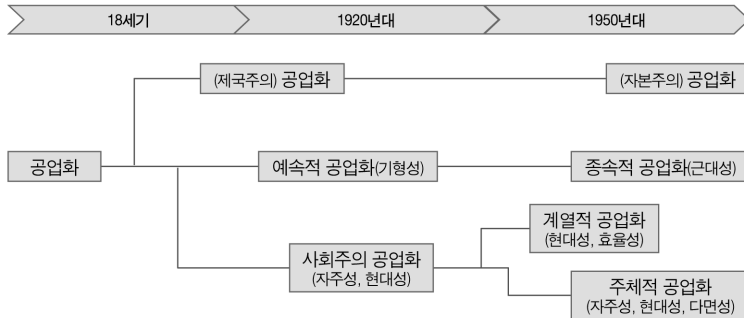
5. 결론

북한이 해방 이후 추진한 ‘사회주의공업화’는 소련이 경험하고 성취했던 한 개 나라 단위의 ‘자립적’이며, ‘현대적 공업’ 창설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 들어서며 소련은 자국 중심의 사회주의블록을 형성하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뜻을 ‘현대적 공업’ 창설만으로 한정한다. 소련 주도의 블록 내 협력을 위해 ‘효율성’을 내세워 레닌과 스탈린의 공업화 원칙의 하나였던 ‘자립’을 뺐다. 북한 입장에서 나라마다 자연부원과 생산력 발전 수준 그리고 생산물의 품종과 양도 다른 현실에서 수행해야 할 경제건설의 구조, 방향은 자주적으로 설정해야 할 문제였다.

113)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 실행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57년 2월 24일.

114) “자랑스러운 승리의 총화,” 『로동신문』, 1957년 2월 24일. 이에 앞서 조선로동당은 1956년 12월 11일 개최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3개년계획 실행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킨 당 경제정책을 옳았다고 평가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6년 12월 15일.

〈그림 1〉 공업화의 시대별, 발전전략별 전개 양상



여기서 북한의 사회주의공업화는 소련에의 종속이 아닌 자립을 선택했고, 점차 동유럽 국가들과 산업 구성과 질을 달리한다.

1954년 말부터 1955년 사이에 조선로동당은 사업에서 ‘주체’ 확립 문제를 전당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주체’ 확립에 시간이 걸렸다. 자신들이 진행 중인 공업화를 아직 ‘사회주의공업화’라고 표현하였다. 이론을 담당한 사람들이 당 정책과 대중 활동에 관하여 변별하여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 추세를 좇아 설명했기 때문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고안운동을 진행했고 북한 실정에 맞게 새로운 대중운동을 만들며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또 놀라운 ‘기적’도 창출했으나 그것을 제대로 이름 붙이지 못했다. 북한식 성취를 양적 증가를 기준으로 자랑했지만 제대로 의미 부여를 못했다. 북한의 이론가들은 변화를 보면서도 당이 주장한 ‘주체’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것만 쳐다봤고, 레닌을 인용하며 대중의 새로운 경험축적들을 “조선 현실에의 창조적 적용” 정도로 설명했다.¹¹⁵⁾ 아직 제대로 된 주체 관점

115) 북한 학자들은 자기들의 공업화 성취를 일정 기간 “레닌적 사회주의공업화” 또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쓰딸린적 정책” 등으로도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레닌적

과 기준을 결여했으므로 ‘자립적 중공업화’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북한식 ‘사회주의공업화’에 대해 새롭게 ‘주체적 공업화’로 개념화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북한의 ‘주체적 공업화’는 본질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자주성과 현대성과 다르지 않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공업화가 결과한 기형성을 해결하고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지향하면서 나온 것이며,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미국 주도 자본주의 세계시장 편입을 전제로 한 성장전략과 다른 것이었다. 전쟁 시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력갱생’ 원칙을 천명할 수 있었던 판단의 원천이며, 전후 복구에서 자립적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선택의 기준이었다. 또한 소련이 사회주의 경제블록을 만들어 북한경제를 종속적 하부단위로 편재시키고자 했던 외압에 맞선 개별적 독립국가로서 자주노선의 경제적 발현이었다.

북한의 ‘자립적 중공업’ 발전의 특징은 ‘자생, 자강의 역사’ 즉, ‘주체적 공업화’이다. 기본 내용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자립적 중공업 건설을 우선하면서도 인민소비품을 생산 보장하는 경공업 건설을 통해 다면적인 생산구조의 확립, 자체의 원료·연료기지 축성, 과학자·기술자의 내부양성을 통한 생산의 기술적 토대 강화이다.

■ 접수: 10월 13일 / 수정: 12월 6일 / 채택: 12월 12일

사회주의공업화이론의 빛나는 구현, 리선국,” 『로동신문』, 1960년 4월 20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옮김, 『주체공업 건설리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과학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학령도사』(전 2권)(평양: 과학원출판사, 2002).
김도성,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김병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럼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사』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2) 논문

- 김기남, “우리 당 경제정책의 과학적 기초,” 『근로자』, 제4호(1957).
김두봉,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의 북조선 민주건설의 성과와 그에 있어서의 위대한 소련의 원조에 대한 보고,” 『근로자』, 12월호(1948).
김상학, “중공업은 국가 공업화의 기초,” 『근로자』, 제11호(1955).

3) 신문, 기타 자료

- 『정로』, 1946년 2월 14일; 1946년 8월 11일; 1946년 8월 29일.
『로동신문』, 1946년 9월 14일; 1946년 10월 20일; 1946년 10월 23일; 1946년 12월 10일; 1947년 2월 20일; 1947년 3월 18일; 1947년 4월 4일; 1947년 8월 21일; 1947년 12월 31일; 1948년 2월 8일; 1948년 2월 20일; 1948년 9월 11일; 1948년 12월 12일; 1949년 1월 29일, 1949년 2월 4일; 1949년 4월 8일; 1949년 11월 20일; 1949년 12월 21일; 1950년 2월 27일; 1950년 3월 17일, 1950년 6월 22일; 1951년 1월 2일; 1951년 3월 5일; 1951년

6월 19일; 1953년 7월 28일 호외. 1953년 8월 11일; 1953년 8월 25일;
1953년 8월 27일; 1953년 8월 30일. 1953년 9월 21일; 1953년 9월 30일;
1953년 10월 9일; 1953년 11월 26일; 1953년 12월 22일; 1954년 3월 25일;
1954년 3월 27일. 1954년 4월 22일; 1954년 5월 27일; 1954년 5월 29일;
1954년 6월 8일; 1954년 6월 26일; 1954년 6월 28일; 1954년 7월 21일;
1954년 7월 27일. 1954년 7월 28일; 1954년 9월 4일; 1954년 10월 9일;
1955년 1월 5일. 1955년 2월 25일; 1955년 4월 3일; 1955년 5월 6일; 1955년
6월 28일; 1955년 8월 23일; 1955년 12월 30일; 1956년 3월 19일; 1956년
4월 24일. 1956년 4월 25일; 1956년 7월 15일; 1956년 12월 15일; 1956년
12월 28일; 1957년 2월 15일; 1957년 2월 24일; 1957년 3월 22일; 1957년
8월 13일; 1958년 11월 23일; 1959년 8월 6일. 1959년 8월 22일; 1960년
4월 20일; 1968년 7월 3일; 1972년 12월 3일; 1974년 10월 9일; 1981년
8월 10일; 1985년 8월 17일.

『민주조선』, 1953년 9월 25일; 1954년 8월 14일; 1955년 5월 17일; 1955년 7월
28일; 1955년 12월 30일.

『청년전위』, 2001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1958년 7월 22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서울: 선인, 2007).

김광운,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서울: 코리아테이터프로젝트, 2018~2022),
제1~160권.

김광운, 『북한정치사』 1(서울: 선인, 200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서울: 선인, 200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 변화』(서울: 선인, 2009).

2) 논문

- 김근배, “‘리승기의 과학’과 북한 사회,”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0권 1호(1998).
- 변학문, “북한의 기술혁명론: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주호, “북한의 공업화 구상과 북소경제협력(1953~1970년)”(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廖蓋隆, 『中國共產黨的光輝70年』(北京: 新華出版社, 1991).
- 李春虎, 『戰後朝鮮的抉擇1945~1995』(서울: 大旺社, 2003).
- 木村光彦·安部桂司, 『北朝鮮の軍事工業化-帝國の戦争から金日成の戦争へ』(東京: 知泉書館, 2003).
- 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 『斯大林全集』第7卷(北京: 人民出版社, 1958).

2) 논문

- Cho, Eun-sung, “The Thread of Juche: Vinalon and Materially-Embodied Inter-dependencies in North Korea, 1930-2018”(Ph.D, Columbia University 2020).
- Wyczalkowski, M. R., “The Soviet Price System and the Ruble Exchange Rate,” IMF eLIBRARY.

North Korea's Choice of “Self-reliant Heavy Industrialization” and Preparation of Development Foundation (1945-1956)

Zhang, Chao(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vers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promotion in North Korea from 1945 to 1956. I analyze how North Korea's development route of industrialization is related to the socialist industrialization of the Soviet Union. I focus on when and under what historical conditions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socialist industrialization of the Soviet Union changed, and what its historical significance wa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existing research on North Korea, and examines whether or not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forces pursuing heavy industry and the forces emphasizing popular consumer goods in the 1950s. In regard to the existence of a self-supporting national economy, self-reliance, and Juche industry, I demonstrate the timing and background of the use of such concepts as well as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Through this process, the paper identifies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was the 'self-reliant', 'modern' industrialization in essence that the Soviet Union had experienced in the one country basis. However, with the formation of the socialist bloc in the 1950s, the Soviet Union's understanding of socialist industrialization was limited to modernization, so North Korea created the new conceptual term of 'Juche industrialization'. In this process, there was no force — such as Park Chang-ok — that emphasized the production of people's consumer goods. The basic contents of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from 1945 to 1956 were to prioritize the construction of self-supporting heavy industry with the machine manufacturing industry as the core, to establish a multifaceted production structure that developed into the construction of light industry for the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to build a base for its own raw materials, and to tra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internally.

Keywords: socialist industrialization, independent heavy industry, Juche industry, self-supporting economy, self-reliance